

#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결과보고서

<b>제목</b>	<b>일상의 관찰, 초록불 학교생활</b>
-----------	-------------------------

## 1. 학교 통학로 안전 위협 요소 전체 지도



### 가. 통학로 특성

- 구릉지에 위치한 학교로서 경사 5° ~ 15° 경로
- 일방통행로 및 통근/통학 차량의 이동량 많음.
- 보행자 위협요소 많음.



### 나. 위험요소

- 10가지의 유형별 위험요소 조사 및 파악
- 3개 학년 650여 명의 통학과 80여 명의 교직원 통근이 이루어지는 학교 규모에 비해 주변의 도로(차로 및 보행자 인도)가 협소하거나 위험에 취약한 상태임.
- 2019년 하반기부터 보행로 개선사업을 위해 공사를 하고 있으나 공사중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위험의 일상화에 따른 익숙함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결과보고서

### 2.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 모색

문제제기 1. 자동차 시대에 던지는 질문, 도로의 주인은 누구인가(출처 : 내일의 도시를 생각해, 최성용, 일부 발췌 및 편집)

- 길은 통행로 그 이상이다. 물론 대부분의 길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하는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홀로 길을 걸으며 사색에 잠기고, 새와 나무 같은 자연을 만나기도 한다. 친구와 함께 뛰어놀거나, 이웃과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고, 전혀 모르는 이들의 행동을 구경하며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럼에도 길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도시는 삭막해지고 재미없는 곳이 될 것이다.
- 하지만 도시의 길에서 최우선시되는 것이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 즉 보행자라면 어떻게 달라질까. 사람들이 걷기 좋아하는 길은 그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천천히 거닐고 싶고, 멈추고 싶어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중심의 거리가 사람 중심의 거리로 바뀌는 일은 단순히 걷기 편하고 안전한 길로만 바뀌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제제기 2. 주의/위험 표시하기 전에 ‘주의’ 할 일(출처 : 건축가 이일훈, 카메라로 세상을 읽다 사물과 사람 사이, 이일훈, 일부 발췌 및 편집)

- 교통안내 주의 표지는 사고를 방지하려 설치한다. 교차로, 건널목, 굽은 도로, 오르막과 내리막,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각종 위험 정보를 미리 알려 유용하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 ‘위험’에 불과하다. 즉 위험 표시가 경고를 위해 있는 상황이야말로 ‘위험’ 그 자체다. 시가지를 통과하는 고압선에도 ‘위험’ 표지가 흔들린다. 그 밑을 걷는 사람들에게, 고전압이 흐르지만 안전장치를 했으니 마음 놓으라고 ‘안전’이라는 표시가 붙는 날은 언제일까. 경고만 하는 ‘위험’은 무책임해 보이고, ‘안전’이라고 해야 책임 있어 보인다. 불안과 위험을 알면서 근본을 고치지 않고 주의와 경고문으로 버티는 것은 유사시 핑계거리를 찾는 불순함 그 자체다.

연구목적 :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첫 발걸음은 통학로 안전에서 시작할 수 있다. 본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단순히 통학로가 아닌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첫 단추가 되길 바라본다.

#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결과보고서

## 2.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 모색

■ 조사원 : 울산여고 2학년 김신비, 정현경, 차서림 및 지도교사 곽민  
(geominguy@gmail.com, 010-4597-1303)

■ 조사 및 연구 기간 : 2021.08.23. ~ 09.24. 1개월

### ■ 조사계획 수립

조사 지역 및 주제 설정	등하굣길 위험요소 제거 및 보행자 안전 설계를 통한 울산여고 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	
조사 목적	지리 정보 수집	
	조사 항목	조사 방법
울산여고 주변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	통학구역 관리 관련 법률-제도 (국내·외), 보행자 안전 확보 사례	실내조사 (문헌, 인터넷 조사)
	성별, 연령, 거주지, 통학 소요 시간, 등하교 동선	야외조사(설문조사, 면담)
	오목거울, CCTV 설치 수량 및 장소, 오목거울과 CCTV 추가 설치 필요한 곳, CCTV 해상도 및 관제 현황	실내조사(인터넷 조사), 야외조사(관찰, 촬영, 면담)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별 차량 평균 유동량, 도로 폭, 인도 설치 여부	실내조사(인터넷 조사) 야외조사(관찰, 실측)
지리 정보의 분석 및 정리	수집한 정보의 분석(유형별 분류, 통계처리)을 통해 지도, 그래프 등으로 표현	
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 목적과 방법, 분석-정리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 도출	

### ■ 1차 조사 및 토의 결과

- 통학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발견됨. 통행의 장애물 및 사각지대

#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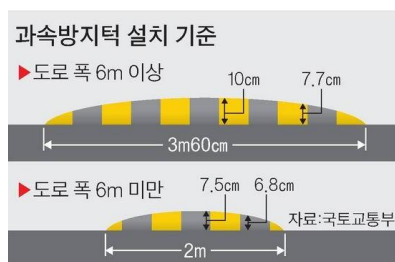
## 2.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 모색

- 통학생의 규모(인원) 대비 인도 폭 협소
- 학교 인근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 차량 이동 및 낙하위험 요소 상존
- 학교 주변 상권 위축에 따른 상가 건물의 공실 증가 및 슬럼 형성
- 학교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 경비원이 상주하는 아파트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음. 원룸 및 빌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계가 있음.

### ■ 2차 조사 및 토의

- 횡단보도 보행시간 : 보행진입시간 7초 + 횡단보도 길이(m)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길이가 32m이면, 보행진입시간 7초 + 횡단보도 길이 32m → 총 39초 동안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유지됨.  
 (단, 보행약자(어린이, 어르신, 장애인)나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의 횡단보도는 1m당 1초보다 완화된 0.8m당 1초를 기준으로 보행시간이 결정됨.
- 문제제기 : 횡단보도(橫斷步道)의 용어 문제 → ‘횡(橫)’은 가로지른다는 뜻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주인이고 건너는 사람은 종(從)이다. 왜 자동차가 우선인가, 용어가 인식의 프레임을 결정하는 도구라면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종단보도?! 故 이일훈 건축가에 따르면, 보행자 천국의 도시, 무사고 도시, 안전도시를 만들면 그게 바로 자원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자 도로를 만든다면 세계의 일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 3차 조사 및 토의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 폭 6m 미만의 경우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최고 7.5cm, 폭은 2m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검정/노랑 도색을 통해 가시성이 높아야 한다.

#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결과보고서

## 2.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 모색

- 그러나 도색이 바래 가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수차레 도로공사와 규격에 맞지 않는 설치 등으로 과속방지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 ■ 4차 조사 및 토의



#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결과보고서

## 2.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 모색

- 학교 정문 앞 교차로는 4갈래의 도로일 뿐만 아니라 하교시 학생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파악됨. 정문 출입구에서 직진 및 오른쪽 방향으로 하교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바로 옆 도로(경사 5° 내외의 내리막길)로 통행하는 차량과 정문의 기둥에 의한 사각지대 형성으로 인해 대단히 위험한 곳으로 판단함. 특히 과속방지턱이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속도 저감보다는 자연스러운 차량 통행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과속방지 효과가 미약했음. → 수년 간 큰 사고 없이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었으나, 충분히 사고 예견이 되는 곳이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최근 정문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인도가 정비되었음. 그럼에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에만 의존하는 도로 시스템으로는 교통 안전을 담보하기엔 한계가 있음. 넛지 효과(nudge effect)처럼 구조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도로 폭의 변화 또는 과속방지턱의 물리적 개선이 필요함.

#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결과보고서

## 2.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 모색

- 학교 정문 앞 교차로는 4갈래의 도로일 뿐만 아니라 하교시 학생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파악됨. 정문 출입구에서 직진 및 오른쪽 방향으로 하교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바로 옆 도로(경사 5° 내외의 내리막길)로 통행하는 차량과 정문의 기둥에 의한 사각지대 형성으로 인해 대단히 위험한 곳으로 판단함. 특히 과속방지턱이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속도 저감보다는 자연스러운 차량 통행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과속방지 효과가 미약했음. ➔ 수년 간 큰 사고 없이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었으나, 충분히 사고 예견이 되는 곳이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 5차 조사 및 토의

- 각 학교급별 ‘2021학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한계 : 부서별 업무분장 및 안전교육(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안전영역별 안전교육 이수 현황 및 교과-창의적체험활동 안전교육 계획)과 재난대피훈련 연간계획 위주로 작성되어 있음. 즉, 교내의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들의 신체적 특성과 통학 특성이 다름에도 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음.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의 출발과 도착은 통학로 안전에서 시작되는 만큼 각 학교 주변 환경 특성(지형, 도로 현황과 주거지 특성, 차량 유동 및 통행량 등)을 고려한 통학로 안전계획과 조치사항을 포함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 6차 조사 및 토의

- 위험의 일상화(무감각) :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전선과 철근 등이 노출되어 있음. 해당 지역을 통학하는 학생과의 인터뷰에서도 익숙한 일상 속 모습으로 인식되어 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음.

➔ 현대사회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적 소비재로서 ‘안전’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따라서 개개인이 정치성을 띠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 실천을 해야 함.

#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결과보고서

## 2.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 모색



➡ 우리의 안전을 누군가가 담보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전에 우리 스스로 위험요소를 찾아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안전은 담보될 수 있을 것임. 일상의 낯설게 보기(관찰하기)와 실천 자세가 필요한 때임.



#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결과보고서

## 3. 결론 및 제언

### ■ 방과후 자료조사 및 토의

-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방과후에 모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각자 맡은 부분의 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 공유 및 토의를 진행함.

### ■ 등하교시 및 주말을 이용한 통학로 관찰 및 사진 촬영

- 평소 등하교시 인지하지 못했던(위험의 일상화) 통학로에서 낮설게 보기를 시도하며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주말을 이용해 사진 촬영함.

### ■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각종 재해재난을 비롯한 안전사고 등은 일상의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으며 당장 크게 불편하지 않아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조심하면 되지’ 라는 안일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콜롬비아 보고타의 前시장, ‘엔리케 페날로사’ 는 TED 강연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 있음. “고속도로를 가진 도시가 위대한 도시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탄 아이가 어디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시가 위대한 도시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 세계의 생태·환경도시로 알려진 브라질의 꾸리치바, 콜롬비아의 보고타 등과 같이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도시 공간, 학교 주변 통학로를 확보해가는 것이 시민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함.

- 교내의 위험요소는 파악했으나, 연말부터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므로 본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음. 시간의 한계상 조사계획의 모든 부분을 진행하지 못했으며, 유관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을 여유가 없어 본 연구의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본 활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가는 첫 발걸음이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음.

# 제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결과보고서

## 활동 소감

### ■ 김신비

지도 제작 전 책을 읽으며 어떤 요소를 주의깊게 살피고 조사해야 할 지 생각해보는 과정을 가졌다. 덕분에 위험 안내 표지판이 그저 보행자에게 경고문만 내세우며 위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 직접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내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 요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이래도 괜찮은가? 하곤 가볍게 지나갔던 것들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특히 도로나 인도의 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한 곳, 과속방지턱의 효과가 미미한 곳, 또는 감시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 등을 찾아보며 우리가 직접 만든 지도가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참 보람차고 뿌듯한 활동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 ■ 정현경

사실 등하교를 하면서 학교 주변 공사장, 인도와 도로가 구분없는 부분, 전선 노출 등 불편했지만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과 관련지어 조사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조사를 하면서 내가 평소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이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생각보다 우리 학교 주변에는 위험요소들이 꽤 많았고 지금이라도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러한 과정에 내가 함께할 수 있어서 뿌듯했던 것 같다.

### ■ 차서림

학교는 학생이 다니는 곳인데 과연 위험요소가 많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 차량, 사각지대, 공사장, 과속방지턱 등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나는 학생이기에 누군가가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어 왔었기 때문이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한 위험요소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